

루터의 성경과 번역

-시편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¹⁾

하경택*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모토 가운데 하나는 ‘근원으로 돌아가자’(ad fontes)였다. 이 말은 본래 인문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작업 정신을 표현하는 모토로 사용했던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되었다.²⁾ 종교개혁자들은 신자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모두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였다.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들도 저마다 성경을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위클리프는 중세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얀 후스도 체코어 성경을 번역하였다.³⁾ 루터와 동시대를 살면서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츠빙글리도 독일어로 성경(Züricher Bibel)을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이 논문은 2017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2) 이러한 배경 속에서 루터 신학의 3대 모토 중 하나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 나왔다. 루터는 1519년 라이프치히 공개 토론 때 이 모토를 처음 사용했고, 이 모토를 통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서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던 교리 전통이나 교황의 교도권보다 성경의 권위가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 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362.
- 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 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32.

번역하였고,⁴⁾ 그의 뒤를 이은 칼뱅도 번역된 성경을 출판하지는 않았지만, 원문에서 번역된 라틴어 번역본을 토대로 자신의 종교개혁 신학사상을 전개 하였다.⁵⁾ 이렇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성경번역가이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루터의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루터의 성경 번역과 개정작업에 대한 개관적인 고찰을 한 후 시편 번역 성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편 번역 성경의 출판의 역사와 그의 번역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특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별히 시편 90편에 대한 실례를 통해서 그의 번역의 원칙과 특징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1.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

1.1. 루터의 성경 번역 개요

루터는 성경 번역자이다.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인문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이때 받은 인문주의적 탐구정신이 성경 번역의 큰 자산으로

4) 스위스 독일어 번역 성서인 『취리히 성경』(Zürcher Bibel)은 처음에 루터의 신약성서를 독일 서남부 고지대 방언인 알레만어(Alemannic)로 고쳐 1524년에 출판된 것이었으나, 츠빙글리가 만든 “말씀 전하기(Prophezei)” 모임을 통해 번역작업이 이루어져 1531년에 신구약성경이 다 들어 있는 『취리히 성경』이 출판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구약성경이 들어 있는 최초의 독일어 성서는 『루터 성경』(Lutherbibel)이 아니라 『취리히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박동현/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Konrad Schmid and Matthias Krieg, ed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1),” 『성경원문연구』 40 (2017), 268.

5) 그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 대한 성구사전이 발간되어 있다. Richard F. Wevers (ed.), *A concordance to the Latin Bible of John Calvin: along with the biblical text itself reconstructed from the text of his commentaries 1-6*, Grand Rapids, Mich.: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at Calvin College and Seminary, 1985. 이뿐 아니라 그는 1535년 출판된 프랑스어 번역 성경의 서문을 작성하였고 계속되는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Basil Hall, “Bibelübersetzung III/3,” *TRE* 6 (Berlin/New York: W. de Gruyter, 1980), 254-256.

활용되었다. 그의 성경번역은 신약성서가 먼저다. 그는 1521년 보름스 제국 회의 이후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피신해 있으면서 신약성서를 번역하였다. 그의 첫 번째 신약성서 번역은 1522년 9월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9월 성경’(Septembertestament)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⁶⁾ 루터의 신약성서 번역은 1519년 출판되었던 에라스무스판 헬라어 성경 제 2판과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번역, 에라스무스의 본문비평적인 언급, 그리고 불가타 성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본문을 외울 정도로 친숙했던 불가타 성경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의 번역은 용이하게 진행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빨라졌다.⁷⁾

이에 반해 구약성서 번역은 오래 걸렸다. 완역까지 12년이나 걸렸다 (1522-1534년). 완역될 때까지 구약성서는 부분적으로 출판되었다. 1523년 7월경 이미 오경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1524년 초 사사기부터 에스더서에 이르는 역사서가 출판되었다. 1524년이 지나는 동안 욥기에서 아가서에 이르는 시가서가 시편의 별쇄본과 함께 동시에 출판되었다.⁸⁾ 예언서의 번역은 1526년부터 1532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1533/34년에 외경이 번역됨으로써 성경 전체가 독일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1534년 4월 1일 뤼벡(Lübeck)에서 요한네스 부겐하젠(Johannes Bugenhagen)을 통해서 저지대 독일어(niederdeutsch)판으로 첫 번째 루터성경이 출판되었다.⁹⁾ 그리고 1534년 9월 첫 번째 비텐베르크 성경전서가 고지대(hochdeutsch)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그것은 한스 루프트(Hans Lufft)에 의해서 인쇄되었다.¹⁰⁾ 루터가 사용한 히브리어 성경은 야콥 벤 하임(Jakob

6) 11주에 걸친 루터의 단독 작업으로 번역이 완료된 독일어 신약성경은 1522년 3월에 이미 윤곽이 드러났으나, 비텐베르크 동료들의 검토를 거쳐 1522년 9월 21일 번역자나 출판사에 대한 표기 없이 출판되었다. Waldtraut Ingeborg Sauer-Geppert, “Bebelübersetzung III/1,” *TRE* 6 (Berlin/New York: W. de Gruyter, 1980), 240.

7) Karl Heinz zur Mühlen,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Siegfried Neurer (Hsg.), *Eine Bibel viele Übersetzungen. Not oder Notwendigkeit?* (Stuttgart: Evangelisches Bibelwerk, 1978), 91.

8) 1524-1544년까지 시편집이 비텐베르크에서 12번에 걸쳐 인쇄본으로 발행되었다.

9) Karl Heinz zur Mühlen,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91-92.

Ben Chajim)이 편집한 랍비성경으로 알려져 있다.¹¹⁾

1.2. 루터성경의 개정

루터는 다른 종교개혁 문서에 대해서는 거의 개정판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번역한 성경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정작업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그의 열정과 애착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동료들의 도움을 힘입어 독일어 번역 성경을 정밀하게 검토하였다. 1529년 6월부터 12월까지 루터와 멜랑히톤(Melanchton)은 신약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1530년 2월에 개정판이 한스 루프트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1533년에 거의 완전한 개정판이 한 번 더 출판되었다. 루터의 성경 번역과 개정을 도운 사람은 멜랑히톤 외에도 여러 명이다.¹²⁾ 우선 히브리어 언어학자 마테우스 아우로갈루스(Matthäus Aurogallus)를 들 수 있다. 그는 1519년에 비텐베르크에 와서 루터와 멜랑히톤의 추천으로 히브리어 교수가 되었다. 또한 카스파 크루치거(Caspar Cruciger)가 있다. 그는

10) 엄현섭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기간을 지나왔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26세가 될 때까지(1508) 스콜라주의를 연구하였다. 이때 루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지 못했다. 둘째는 10년 이상(1509-1517)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타와 교부 그리고 사중해석을 견지하고 있었다. 셋째는, 그 후 4년 동안(1518-21)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교부들의 사상에 점점 덜 의지하게 되었다. 넷째는, 종교개혁과 루터교회가 사용할 분명한 성경해석의 원리를 터득하였다. 그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성경이 최고 권위이며 최종 권위이다. 기독교인은 성경만이 필요하고 주석도 필요 없다. 사중해석을 거부하고 우의적 해석도 거부하고 성경의 명료함을 주장하고 영적인 제사장직을 주장하며 역사상 최초로 성경의 개인 해석을 허락하는 것이다.” 엄현섭, “루터교회와 성경 번역,” 『신학과 신앙』 9 (1998), 180.

11) Muhammad Wolfgang G. A. Schmidt, *Martin Luther und die Übersetzung der Bibel ins Deutsche. Kritisch hinterfragt anlässlich des 500 jährigen Reformationsjubiläums* (Berlin, 2016), 8.

12) Karl Heinz zur Mühlen,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1528년부터 비텐베르크 신학교수로서 활동하였는데 1531년부터 루터의 성경 번역 작업에 합류해 히브리어 번역에 도움을 주었다. 1533부터는 유스투스 요나스(Justus Jonas)도 번역에 참여했다. 멜랑히톤이 마카베오 상하를 번역한 반면, 그는 유딧서, 토빗서, 바룩서를 번역하였다.

1534년판 비텐베르크 성경전서는 1535년, 1536년 그리고 1538/39년에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 없이 계속해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1539년 루터는 이 성경번역을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 즉 멜랑히톤, 아루로갈루스, 부겐하겐(Bugenhagen), 유스투스 요나스, 크루치거, 뢰러(Rörer) 등과 함께 전체 성경을 최종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심한다. 여기에 열거된 학자들 외에도 인문주의자 베른하르트 쾨글러(Bernhard Ziegler)와 요하네스 포르스터(Johannes Vorster)가 부분적으로 참여하였다.¹³⁾

1539년 7월부터 1541년 8월까지 개정작업 모임이 가능한대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루터의 집에서 열렸다. 뢰러가 이 모임의 일지를 작성하였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개정판이 1541년 9월 말에 라이프치히 미하엘 박람회(1541년 10월 2-9일)를 위해서 출판되었다. 루터의 생전에 마지막 판으로 1545년에 한 번 비텐베르크에서 성경 전체가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루터에 의해서 약간의 추가적인 수정작업이 있었을 뿐이다.¹⁴⁾

이러한 성경 번역과 개정 작업을 통해 우리는 루터가 보여주는 두 가지 정신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하나는 인문주의적인 탐구성이요, 다른 하나

13) Karl Heinz zur Mühlen,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92-93.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루터의 성경 번역이 루터의 개인적인 언어능력에 힘입은 바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순전히 그의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14) Karl Heinz zur Mühlen,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93. 이후 개정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Wilhelm Gundert, "Bibelübersetzungen IV/1," TRE 6 (Berlin/New York: W. de Gruyter, 1980), 269-271. 1984년판을 개정한 루터 성경 최신 개정판인 『루터 성경 2017년』(Lutherbibel 2017)은 독일 성서공회에 의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10월 19일 출판되었다. 2017년판 루터 성경 개정판 본문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die-bibel.de/bibeln/online-bibeln/lutherbibel-2017/bibeltext>.

는 종교개혁적인 신실성이다. 후자의 성격은 루터가 자신의 신학과 가르침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기를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주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작업이 좀 더 근원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원전에서 성경을 번역했고, 번역한 성경이 좀 더 완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그들의 도움을 받아 수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을 이루어냈다. 이것은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인문주의적인 탐구성을 보여준다.

2. 시편 성경 출판

루터는 시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루터의 신학 여정은 시편과 함께 한 것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는 자신의 활동 기간 내내 시편을 연구하고 강의했다.¹⁵⁾ 루터는 성서 전체를 하나의 완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이해했고, 그 증언들이 ‘하나의 작은 성경’(eine kleine Biblia)인 시편 안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했다.¹⁶⁾ 이제 시편 성경이 출판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그의 시편 사랑은 시편 성경 출판에서도 드러난다.

첫 번째 독일어 시편 성경은 7개의 참회시(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5) 그의 최초 강의(1513-1515년)가 시편이었다는 점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4차에 이르기까지 시편을 강의(2차: 1519-1521년; 3차: 1532년; 4차: 1532-1533년)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시편 성경을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을 기초로 찬송가를 작곡하여 종교개혁의 불길을 거세게 만들었다. 루터 종교개혁에 대한 시편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정병식, “시편4편 주해에 나타난 초기 루터신학의 변화와 발전,” 『역사신학논총』 2 (2000), 119-135.

16) 그는 1528년 시편 서문에서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살아 있는 색깔과 모양과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 교회를 모사하고자 한다면, 시편을 네 앞에 가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계(Christenheit)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교하고 밝고 깨끗한 거울을 가지게 된다.” Klaus Dietrich Fricke, “《Dem Volk aufs Maul schauen》 Bemerkungen zu Luthers Verdeutschungsgrundsätzen,” Siegfried Neurer (Hsg.), *Eine Bibel viele Übersetzungen. Not oder Notwendigkeit?* (Stuttgart: Evangelisches Bibelwerk, 1978), 100.

102편, 130편, 143편)이다. 이것은 1517년에 루터가 직접 출판하게 한 첫 번째 성경 인쇄본이다. 그는 7개의 참회시편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서적 의미에 따른 독일어 해설과 함께”(mit deutscher auszlegung nach dem schriftlichen synne tzu Christi vnd gottis gnaden)라는 제목을 달아 출판하였다. 이 시편 성경은 불가타와 요한 로이힐린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7개의 참회시(Septene)에 기초하고 있다.¹⁷⁾ 제1판이 성공리에 판매되자 1525년에 상당한 수정을 가한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이미 여기에서 루터의 기독교론적인 시편해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든 시편, 모든 성경이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비난된다.”¹⁸⁾

두 번째 인쇄 성경도 시편이었다. 루터는 1518년 시편 109(110)편¹⁹⁾ 주석을 발행한다. 그가 직접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그의 번역의 기초는 불가타 성경이었다. 루터는 시편 109(110)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시편 109편, 이것은 다윗 왕을 통해 예언되고 묘사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제사장직에 관한 시편이다.”²⁰⁾ 1521년에는 시편 36(37)편의 번역과 주석이 출판되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Wartburg) 성에서 은신 생활을 하면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그는 이 시편을 통해 비텐베르크 교회가 자신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대적자들에 대해 힘써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랐다.²¹⁾

17) Franz Posset, *Marcus Marulus and the Biblia Latina of 1489: An Approach to His Biblical Hermeneutics* (Köln/Weimar: Böhlau Verlag, 2013),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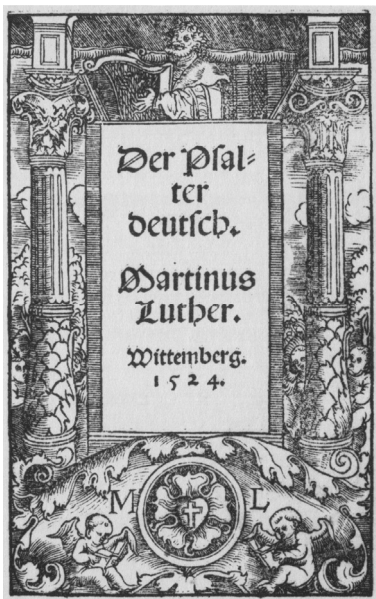
18)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Luthers Bibelübersetzung und ihre Tradition* (Hamburg: Wittig Verlag, 1984), 104.

19) 괄호 안의 숫자는 우리말 성경의 시편 숫자이다. 루터는 70인경에 기초한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따랐기 때문에 시편의 셈법이 히브리어 성경에 기초한 우리말 성경의 셈법과 다르다.

20)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Luthers Bibelübersetzung und ihre Tradition*, 104.

21)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Luthers Bibelübersetzung und ihre Tradition*, 107.

1524년은 루터의 시편 성경의 출판 역사에서 특별하다. 왜냐하면 이때 루터 번역에 의한 독립적인 시편집이 처음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이것은 구약성서의 세 번째 부분, 즉 시가서(욥, 시, 잠, 전, 아; 이때 아가서는 제외된다)가 출판되기 며칠 전에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루터는 독일어에는 없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풍부함에 대해 주목하면서 히브리어로부터 독일어로 번역하는 문제와 시문을 어떻게 독일어로 표현하는가의 문제를 상세히 다룬다. 그리고 자유로운 번역보다는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추구할 것을 밝힌다.²²⁾ 예컨대, 그는 <헤세드 베에메트> (חֶסֶד וְאֱמֶת)를 통상적인 번역을 따라 ‘Barmherzigkeit und Wahrheit’(공휼과 진리)나 ‘Liebe und Treue’(사랑과 신실하심)이라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Güte und Treue’(선하심과 신실하심)로 번역하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테카 우미쉬파트> (צִדְקָה וּמִשְׁפָּט)도 단순히 ‘Gericht und Gerechtigkeit’(심판과 정의)라고 번역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두 낱말이 의미하는 바는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인과 경건한 자들의 무죄를 보호하고 지키며 그것을 장려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그림 1> 본문 안에는 삽화가 없고 시편 1편의 첫 글자에 대한 장식이 있을 뿐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지에는 두 개의 기둥으로 된 지붕 아래에 위쪽에는 하프를 든 다윗이 있고 기둥 양쪽에는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래쪽에는 루터의 장미 문장과 함께 그의 이름의 첫 글자인 M과 L이 새겨져 있고, 문장 양쪽에 책을 읽고 있는 천사가 그려져 있다.

©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147

22) 1524년판 시편 서문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Erwin Mülhaupt (Hsg.), *D. Martin Luthers Psalmen = Auslegung. 1. Band Psalmen 1-2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9), 1-2.

낱말들을 맥락에 따라 ‘Gottes Gericht und Gerechtigkeit’(하나님의 판결과 정의)라고 번역하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설명은 그가 단순히 이전 전통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반영하는 번역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528년에는 시편의 특별판(Sonderausgabe)이 발행된다(그림 2 참조). 루터는 이때 혼자서 수정 작업을 했고 새로운 서문을 달았다. 여기에 서 그는 특별히 정서법과 발음상의 특징들과 노래들의 양식을 정리하는데 주력했다. 이 작업을 통해 그는 비유적인 표현을 강화했고, 언어의 리듬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서문에서도 1524년 판과 다른 점을 보여주었다. 1524년 판 서문에서 그는 번역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시편에 대한 신학적이며 문학비평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는 이제 시편을 하나의 ‘작은 성경’(kleine Biblia) 또는 ‘개요서’(Einchiridion)나 ‘안내서’(handbuch)라고 부른다. 시편의 특별성은 다른 책들처럼 단지 과거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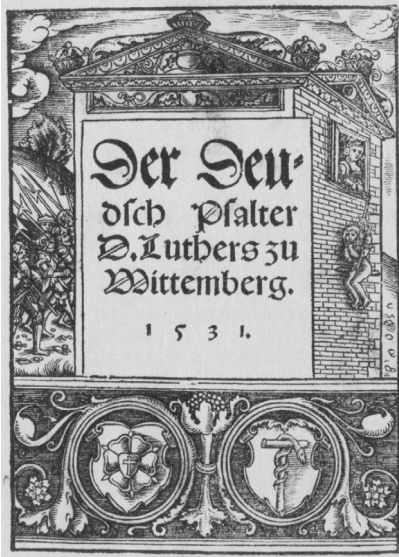
<그림 2> 위에는 성령의 비둘기가 있고 아래에는 십자가를 단 지구의(地球儀)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주변에는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있다. 루터의 서문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은 최고의 성인들이 대화하는 대화의 상대자이시다. 그러나 성령은 이 책의 저자이시다. “이 책은 성서 전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서의 요약과 경험하게 한다.” 성자 하나님은 여기에 없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그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151

루어진 일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편은 살아있는 진술들을 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 나누는 대화이기도 하고 행위와 말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시편 화자들의 마음과 신앙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²³⁾

23) J. Dillenberger, 『루터저작선』, 이형기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77-81
(= Erwin Mülhaupt [Hsg.], *D. Martin Luthers Psalmen = Auslegung. 1. Band*,

이러한 서문에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가 주장한 행위를 통한 칭의 거부, 성인숭배 거부, 성서를 통한 믿음 확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편 서문 자체가 개신교 신학의 ‘개요서’라고



<그림 3> 이 시편 성경은 삽화 없이 출판되었다. 위와 같이 표지에만 그림이 있었다. 이 표지는 하나의 집으로 구성된 목판조각 틀을 보여준다. 왼편에는 사울의 추적자들이 그려져 있다. 오른편에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이 도망치도록 창문을 통해 내려 준 밧줄에 매달려 있다(삼상 19:11이하). 아래 왼편에는 루터의 문장이 새겨져 있고 오른편에는 멜랑히톤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159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루터의 시편성경 발행 역사에서 1531년은 특별하다. 본격적인 개정 작업이 실시된 첫 번째 시편 출판본이 발행되었기 때문이다(그림 3 참조). 이 시편 성경은 1531년 4월 비텐베르크에서 발행되었다. 1524년 시편 성경이 출판된 이후 시편 번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실행되지 않았었다. 루터는 개정작업을 혼자하지 않고 비텐베르크 대학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다. 그는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모든 전문가들과 공동의 논의를 통해 시편 번역을 교정하는 공동 작업을 추진한다. 비텐베르크 지성들이 1531년 1월부터 시편번역을 교정하기 위해 일주일에 여러 번씩 루터의 집에 모였다. 여기에 참여한 학자들은 루터 외에 멜랑

히톤과 아우로갈루스와 크루치거와 유스투스 요나스 등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비텐베르크의 부제(副祭)였던 뢰러(Rörer)가 특별히 참여했다. 그는 이 모임의 서기를 맡았다. 그는 루터의 설교와 강의를 기록하는 역할을 했던

2-5).

24)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Luthers Bibelübersetzung und ihre Tradition*, 151.

사람으로서 속기사로서 입증된 사람이었다. 3월 15일에 새롭고 철저하게 개정된 형태로 시편 번역이 제시되었다. 언어는 시적으로 조밀하게 다듬어졌고, 리듬감 있게 양식화 되었으며, 비유적인 표현들이 증가하였고 금언적 표현으로 단순화 되었다.²⁵⁾

마지막으로 1534년 신구약을 포함하는 독일어 성경전서가 출판된다.²⁶⁾ 작센주의 선제후(選帝侯) 요한 프리드리히(J. Friedrich)가 8월 6일 출판업자들에게 무기한의 출판권을 발급한 후 1534년 9월에 온전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출판되었다. 이 판본의 본문은 다양한 편찬과 개정 과정을 거쳤다. 유딧서, 토빗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서와 같은 외경과 에스더의 일부는 처음으로 출판된 것이었다.²⁷⁾ 구약성서의 처음 세 부분과 이사야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가 개정되었다. 그러나 시편은 거의 고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편은 이미 철저한 개정작업을 거친 후였기 때문이다. 이 밖의 책들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인쇄본에는 삽화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표지그림이 있었고, 창조에 관한 그림이 앞에 놓여 있었으며, 열 개의 장식글자들, 117개의 본문삽화(83개의 구약성서 그림, 34개의 신약성서 그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약성서의 두 번째 부분의 표지만 1524년판으로부터 그대로 가져왔다. 그리고 소수의 그림에만 낙관과 날짜가 있었다.²⁸⁾

25)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Luthers Bibelübersetzung und ihre Tradition*, 158-159.

26) 레벤틀로(H. Graf Reventlow)는 이 독일어 번역 성경을 “최초의 독일어 성경전서”(die erste deutsche Vollbibel)라고 부른다. H. Graf Reventlow, *Epochen der Bibelauslegung. Band III Renaissance, Reformation, Humanismus* (München: Verlag C. H. Beck, 1997), 71.

27)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책들은 멜랑히톤과 유스투스 요나스가 주로 맡았다.

28)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Luthers Bibelübersetzung und ihre Tradition*, 170-172.

3. 루터의 성경 번역 원칙

루터의 성경 번역 원칙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의 번역은 첫째로, 문자에 충실한 번역이었고, 둘째로, 독자의 상황을 고려한 번역이었으며, 셋째로, 종교개혁 신학을 담은 번역이었다.

먼저, 문자에 충실한 번역의 원칙을 살펴보자. 루터는 무엇보다 문자에 충실한 번역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그의 번역은 누구도 모방하지 못할 만큼 문자와 의미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받는다.²⁹⁾ 그는 성경을 번역할 때 가능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알맞은 독일어 표현을 찾는 것을 과제로 여겼다. 이것을 위해 루터는 동료들과 협업을 하였다. 그는 원문의 독특성과 구조의 측면에서도 번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헌학적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도움을 구했다. 그가 추구한 문자에 충실한 번역은 문자 그대로의 낱말 의미만이 아니라 원문의 사실관계에 가장 적합한 독일어 표현을 찾는 노력에서 드러난다.³⁰⁾ 그는 좀 더 나은 표현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한 낱말을 찾기 위해 14일 혹은 3-4주가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 읍기의 경우 멜랑히톤과 아우로갈루스와 자신이 4일 동안 3줄밖에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³¹⁾ 이것은 적합한 표현을 찾기 위해 루터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루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번역이 원문을 충실히 반영한 좀 더 완전한 번역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이다.³²⁾ 이뿐 아니라 그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게 하기 위해

29) M. Dreytza 외 공저, 『구약성서연구방법론』, 하경택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5), 65.

30) Karl Heinz zur Mühlen,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Siegfried Neurer (Hsg.), *Eine Bibel viele Übersetzungen. Not oder Notwendigkeit?* (Stuttgart: Evangelisches Bibelwerk, 1978), 90.

31) Karl Heinz zur Mühlen,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90.

32) 이러한 협업은 단순히 높은 수준의 인문주의 정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의 협업에는 교회론적 관점이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작업에 그리스도의

당시 활용 가능했던 주석들을 참조하였다. 그가 활용한 주석에는 기독교 주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토론에는 유대교 주석도 인용되고 논의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히에로니무스, 니콜라우스 리라(Nicolaus Lyra), 문스터(Munster) 등의 주석이 주로 활용되었다.³³⁾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독자의 상황을 고려한 번역의 원칙이다. 루터의 성경 원칙을 보여주는 예로서 그가 쓴 통역사(Dolmetschen)에 관한 공개서한이 자주 인용된다. 그는 독일어 번역에서 “주민들의 입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문자들(Buchstaben)에게 어떻게 독일말로 말해야 하는 지를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야 할 대상은 집에 있는 어머니,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 시장의 일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지 그들의 입을 보아야 하며 그것에 따라서 통역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들과 독일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³⁴⁾ 그가 ‘주민들의 입을 보라’고 말한 것은 일상적인 표현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표현을 찾으라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는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한 상황에서는 번역의 자유로움 속에서 가장 적합한 독일어 표현을 찾고자 하였다. 적절한 독일어 표현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³⁵⁾ 이것은 루터가 문자에 충실한 번역을 추구하면서도 당시의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선택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게 한다.³⁶⁾ 다시 말하면, 그의 번역은 독자의 상황을 고려한 번역이었다는

영이 함께 하기를 간구했다.”는 서신 속에 나타난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Karl Heinz zur Mühlen,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95-96. 이러한 협업은 오늘날 우리 학자들이나 목회자에게도 요청되고 장려되어야 할 덕목이다. 루터가 보여준 협업과 개정 노력은 훗날의 번역들이 루터성경을 앞서기가 힘든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평가이다.

33) Karl Heinz zur Mühlen,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94.

34) K. Aland (Hrg.), *Luther Deutsch. Die Werke Luthers in Auswahl. 5: Die Schriftausleg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85.

35) Karl Heinz zur Mühlen,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95.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일어학자 프리츠 쉼히르(Fritz Tschirch)는 루터의 번역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한다. “루터가 통용되는 일상어를 자신의 번역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의도는 자신의 주의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범지역적인 평균적 언어(Ausgleichssprache)를 지향한 것이다.”³⁷⁾ 그의 번역은 독일 지방방언들을 통일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 때문에 그는 신고지대 독일어(neuhochdeutsch)의 창안자로 여겨진다.³⁸⁾

루터의 세 번째 번역 원칙은 종교개혁 신학을 담은 번역이었다. 루터는 모든 구절을 그 구절의 맥락 안에서 그 상황에 맞게 번역하되, 성서 전체의 신학이 반영된 번역이 되도록 힘썼다. 특별히 구약성서의 표현과 개념들도 성서 전체의 복음적인 이해의 관점 아래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 신학을 담은 용어를 택하기를 선호했다. 예컨대, <카라 베셀>

36) 최근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을 분석한 슈미트(Muhammad Wolfgang G. A. Schmidt)도 루터의 번역은 “문자에 충실한 번역”(wortwörtlich zu übersetzen)이면서도 동시에 “의미를 잘 살리는 번역”(sinnetreuen Übersetzung)이었다고 평가한다(Muhammad Wolfgang G. A. Schmidt, *Martin Luther und die Übersetzung der Bibel ins Deutsche*, 8).

37) Fritz Tschirch,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2. Entwicklung und Wandlungen der deutschen Sprachgestalt vom Hoch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Berlin: Schmidt, 1969), 103 (Klaus Dietrich Fricke, “»Dem Volk aufs Maul schauen« Bemerkungen zu Luthers Verdeutschungsgrundsätzen,” 106에서 재인용).

38) 정확히 말하면 그의 번역은 동중부독일어(ostmitteldeutsch)와 고지남독일어(oberdeutsch) 방언을 주로 사용하였다. 근대 고지대 독일어는 14세기에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때 독일의 신비주의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 신비주의는 독일어를 내면화하였고, 자신들이 그것을 사용하여 깊은 개인적 체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중세 후기에 이미 발생하였던 독일어의 이러한 변화의 도움을 입어 루터는 자신의 통찰력과 경험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하였다. 그가 만들어낸 많은 단어들이 그 언어의 일부가 되었으며, 다른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루터가 그것들에 부여한 의미를 취하게 되었다. 그는 민중들이 쓰는 구어체와 격조 있는 표현을 구사했기 때문에 그의 문체는 쉬우면서도 우아하였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식자나 무식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성경번역은 즉각적으로 모든 성경 번역본들 가운데 가장 각광받는 번역본이 되었다. 1522년과 1533년 사이 루터의 신약성경은 85권이 인쇄되었고, 비텐베르크의 출판업자인 한스 루프트(Hans Lufft)는 1534년 성경전체가 출판된 후 50년 동안 10만부를 판매하였다. 이것은 루터의 독일어 번역이 지역 방언들을 신고지대 독일어로 통일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가톨릭 지역과 개신교 지역의 언어사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B. Lohse, 『루터연구 입문』,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3), 165-166; 인터넷사이트: <https://de.wikipedia.org/wiki/Lutherbibel>.

(**רָצוֹן אֶפְרָיִם**)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다’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는 이것을 ‘설교하다’(predigen)로 번역하였다(창 4:26; 12:8; 13:4; 21:33; 26:25; 출 33:19; 34:5; 시 105:1; 116:13, 17 등).³⁹⁾ 그는 ‘믿음과 칭의/의화’(Glauben und Rechtfertigung)에 관한 문제에서만 종교개혁 신학이 반영되도록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 전반에서 가능한 종교 개혁 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용어를 선택하여 번역하였다.⁴⁰⁾ 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목적은 분명하였다. 그는 독일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독일어 성경 번역 목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독일 신자들이 성서 전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을 발견하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죄인의 칭의/의화(Rechtfertigung)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고자 하였다.⁴¹⁾

4. 루터의 시편 번역의 예

4.1. 시편 90편의 번역 비교

루터는 제4차 시편을 강의(1531-1533년)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9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편 90편이 루터의 마지막 시편 강의에

39) Klaus Dietrich Fricke, “»Dem Volk aufs Maul schauen« Bemerkungen zu Luthers Verdeutschungsgrundsätzen,” 101-102.

40) 예컨대, 그가 선호한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Erlöser und Heiland, Erlösung und erlösen, Heil und Hilfe, retten und erretten, Vergebung und vergeben, Gnade und gnädig sein, selig sein, heilig, verheißén, Wort Gottes und Lehre, predigen und verkündigen 등(윗글, 101).

41) Klaus Dietrich Fricke, “»Dem Volk aufs Maul schauen« Bemerkungen zu Luthers Verdeutschungsgrundsätzen,” 103. 그가 사용한 핵심적인 표현들은 언어의 차원을 뛰어넘는 신학적인 표현들이다(예컨대, Geist, Güte, Treue, Glauben, Gerechtigkeit, Recht, versiegeln 등). 이러한 용어들은 당시에 생소했지만 루터는 이러한 용어들을 자꾸 들음으로써 그 본래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했다(윗글, 109).

등장하는 본문이었다는 점에서 시편 번역의 예로서 살펴보기에 의미가 있다. 아래 번역들은 루터의 시편이해의 단계를 잘 보여준다. 1513/15년판 번역은 그의 첫 번째 시편 강의록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의 번역은 불가타 라틴어 성경의 시편 본문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은 강의록의 중간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⁴²⁾ 1524년판 번역은 위에서 밝혔듯이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출판된 시편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당시에는 지금과 정서법이 다르나 현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인 독일어 정서법을 따라 표기하였다.⁴³⁾ 마지막으로 1531/34년판 번역은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거친 1531년판 번역과 이를 토대로 1534년에 출판된 독일어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다.⁴⁴⁾

절	1513/15년판	1524년판	1531/34년판
1	Gebet Mose, des Mannes Gottes. Herr, du bist unsre Zuflucht für und für.	Ein Gebet Mose, des Manns Gottes. HERR, du <u>bist</u> unsre Zuflucht <u>worden</u> für und für.	Ein Gebet Mose, des Manns Gottes. Herr Gott, du <u>bist</u> unsre Zuflucht für und für;
2	Ehedenn die Berge wurden und das Land und Erdboden geschaffen wurden, bist du Gott von Ewigkeit zu Ewigkeit.	Ehe denn die Berge ge- boren waren und das Land und Erdboden be- reit waren / bist du Gott von Ewigkeit in Ewigkeit.	ehe denn die Berge wurden und die Erde und die Welt ge- schaffen wurden, bist du, Gott, von Ewigkeit zu Ewigkeit.
3	Wende den Menschen nicht ab zur Niedrigkeit. Du hast doch gesagt: bekehret euch ihr Menschenkinder.	Der du die Menschen <u>kehrest ins verderben</u> / Und sprichst: kommt wieder ihr Menschenkind.	Der du die Menschen lässt ster- <u>ben</u> und sprichst: kommt wied- er, Menschenkinder;
4	Denn tausend Jahr sind vor deinen Augen wie der ges- trige Tag, der vergangen ist. Und wie eine Nachtwache.	Denn tausend Jahr sind für dir wie der Tag, der gestern vergangen ist, und wie eine Nachtwache.	denn tausend Jahre sind vor dir wie der Tag, der gestern vergan- gen ist, und wie eine Nachtwache.

42) Erwin Mülhaupt (Hsg.), *D. Martin Luthers Psalmen = Auslegung. 2. Band Psalmen 26-9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524-525.

43)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Luthers Bibelübersetzung und ihre Tradition*,

44) Heimo Reinitzer, *Biblia deutsch: Luthers Bibelübersetzung und ihre Tradition*, 170-172.

5	Ihre Jahre sind wie nichts. Mag es frühe dahingehen wie das Gras.	Du reissest sie dahin und sind wie ein Schlaf / Und es verwandelt sich frühe wie Heu.	Du lässest sie dahin fahren wie einen Strom und sind wie ein Schlaf, gleichwie ein Gras, das doch bald welk wird,
6	Mag es frühe blühen und da- hingehen; mag es am Abend dahinsinken, verwelken und verdorren.	Das da frühe blüht und verwandelt sich / Aber des Abends wird es abge- hauen und verdorrt.	das da frühe blüht und bald welk wird und des Abends abgehauen wird und verdorrt.
7	Denn wir nehmen ab durch deinen Zorn und zerfahren vor deinem Grimm.	Denn wir vergehen in de- inem Zorn / Und ers- chrecken für deinem Grimm.	Das macht dein Zorn, daß wir so vergehen, und dein Grimm, daß wir so plötzlich dahin müssen.
8	Du stellst unsere Missetaten vor dich. Unsere Zeit ins Licht für deinem Angesicht.	Du setzest unser Missetat für dich / Unser heimli- <u>sche Sünde</u> ins Licht für deinem Angesicht.	Denn unsre Missetat stellst du vor dich, <u>unsre unerkannte</u> <u>Sünde</u> ins Licht vor deinem Angesicht.
9	Denn alle unsre Tage nehmen ab. Durch deinen Zorn neh- men wir ab. Unsre Jahre med- itieren gleichsam gespinste.	Denn alle unsre Tage sind dahin in deinem Zorn / Wir haben unsre Jahre zu- <u>bracht</u> wie ein Geschwätz.	Darum fahren alle unsre Tage dahin durch deinen Zorn. Wir <u>bringen</u> unsre Jahre <u>zu</u> wie ein Geschwätz.
10	Die Zeit unser Jahre ist sieb- zig Jahre. Bei den Stärkeren achtzig Jahre, darnach ists nur noch Mühe und Schmerz. Und eine Freundlichkeit, wenn wir vergehen.	Die Zeit unser Jahre ist siebzig Jahre / wens hoch kommt / so sind achtzig Jahr / danach ists Mühe und Arbeit / Denn es fährt schnell dahin und wir fliegen davon.	Unser Leben währet siebzig Jahre, wens hoch kommt, so sinds achtzig Jahr. Und wens köstlich gewesen ist, so ists Mühe und Arbeit gewesen. Denn es fähret schnell dahin, als flögen wir davon.
11	Wer kennt aber die Macht deines Zorns? Und wer kann vor Furcht das Ausmaß de- ines Zorns erfassen?	Wer kennet die Macht deines Zorns? Denn wie sehr man sich für dich fürchtet / so sehr zürnest du?	Wer glaubts aber, daß du so sehr zürnest, und wer fürchtet sich vor solchem deinem Grimm?
12	Mache uns deine Rechte be- kannt und uns ins Herzen gebildet in deiner Weisheit.	<u>Lass uns wissen die Zahl</u> <u>unserer Tage /</u> <u>Das wir eingehen mit</u> <u>weisem Hertzen.</u>	<u>Lehre uns bedenken, daß wir</u> <u>sterben müssen, auf daß wir klug</u> <u>werden.</u>

4.2. 루터 번역의 특징들

루터의 시편 번역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는 과거적 사건의 완료형을 현재시제로 번역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적인 진술을 현재화한 것이다. 이러한 번역은 여러 차례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고해진다. 1524년 번역에는 역사적 사실의 완료형을 과거 시제로 번역했으나 1528년 부분적으로 현재 시제로 번역하다가 1531/34년판에서는 줄곧 현재 시제로 번역하였다. 시편 90편 1절 번역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절	히브리어 본문	1524년판	1531/34년판
1	אֲדֹנָי מַעֲוֹן אֲתָהּ הָיִיתָ לָנוּ	HERR, du bist unsre Zuflucht <u>worden</u>	Herr Gott, du bist unsre Zuflucht

1524년판에서는 ‘bist worden’의 현재완료(과거형)으로 번역했으나, 1531/34년판에서는 ‘bist’라는 현재 시제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의 이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이 과거만 아니라 현재에도 변함없는 사실임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절	히브리어 본문	1524년판	1531/34년판
9	כִּלְיֵינוּ שָׁנִינוּ כִּמְזוּחָהָּ	Wir haben unsre Jahre <u>zu-</u> <u>bracht</u> wie ein Geschwätz.	Wir <u>bringen</u> unsre Jahre <u>zu</u> wie ein Geschwätz.

9절의 번역에서도 그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킬리누> (כִּלְיֵינוּ)는 <칼라> (כָּלָה) 동사의 히필 완료형이다. 그러기 때문에 1524년판 번역처럼 과거시제(“zubracht”)로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1531/34년판에서는 현재시제(“bringen zu”)로 번역한다. 그것은 9절의 진술이 어느 한 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터는 이러한 번역을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법을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는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역사적 완료형을 현재시제로 번역한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의미에 대한 루터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구약성

서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께 보여 준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증언”⁴⁵⁾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성서는 교회의 시대에 행해야 할 바의 표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동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성서의 사건과 말씀은 단순히 과거적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행동과 말씀인 것이다.⁴⁶⁾ 이러한 이해를 따라 루터는 완료형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현재시제로 번역했던 것이다.

둘째로, 그는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시도했다. 8절 번역을 비교해 보면, 1513/15년판에서는 <알루메누> (עֲלֻמֵּנוּ)가 ‘우리의 시간’(unsere Zeit)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70인경(αἰὼν ἡμῶν)과 그에 기초한 라틴어 번역 성경(saeculum nostrum)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알루메누>는 <알람> (עַלְמָם) 동사의 수동 분사형에 1인칭 복수 대명접미어가 붙은 형태로서, “우리의 숨겨진 것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이 1524년판이나 1531년판에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unsere heimliche/unerkannte Sünde)라고 번역되어 있다. ‘죄’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전반절에 나오는 <아본> (עָוֹן)이 후반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평행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문장구조와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한 예이다.

절	히브리어 본문	1513/15년판	1524년판	1531/34년판
8	לְמַאֲזַר פְּנֵיךְ עַל לִפְנֵינוּ	Unsere Zeit ins Licht für deinem Angesicht.	Unser heimliche Sünde ins Licht für deinem Angesicht.	unsre unerkannte Sünde ins Licht vor deinem Angesicht.

원문에 충실하려는 노력은 1절에 대한 설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번역에는 모두 <마온> (מַעוֹן)을 “Zuflucht”(피난처)라고 번역하고 있다.⁴⁷⁾ 루터는

45) Karl Brinkel, *Luthers Hermeneutik in seiner Übersetzung des Alten Testaments und die gegenwärtige Revision der Lutherbibel* (Berlin: Lutherisches Verlagshaus, 1960), 36.

46) Klaus Dietrich Fricke, “»Dem Volk aufs Maul schauen« Bemerkungen zu Luthers Verdeutschungsgrundsätzen,” 100. 이러한 사실은 시편 98편 1-3절의 번역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상적인 이해를 따라 “Zuflucht”(피난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1534년 시편 강의에서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히브리어 <마온>을 언급한다. 그리고 <마온>이 뜻하는 바를 살려서 우리가 그 분 안에서 “거처”(Wohnung), 즉 주거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루터는 이것이 시편 90편 진술의 특별한 점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고전 3:17)이라거나 하나님이 ‘이곳(즉, 자신의 백성 안)에 살겠다’(시 132:14)고 말하고 있는 반면(또한 시 76:3[2] 참조), 여기서는 정반대의 언급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 진술이 “우리가 집 주인이요 거주자이다”(wir seien die Hausherrn und Bewohner)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⁴⁸⁾ 이것은 루터가 시편이해에 있어서 얼마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⁴⁹⁾

셋째로, 그는 의미에 충실한 번역을 시도했다. 직역할 경우 의미전달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한 바대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미에 충실한 번역에는 루터 자신의 신학이 강하게 작용한다. 12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47) “피난처”(Zuflucht)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은 <마하세>(מַחֲסֵה)이다. 시편에서는 자주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사실이 고백된다(시 14:6; 46:2; 61:4; 62:9; 71:7; 73:28; 91:2, 9; 142:6 등).

48) Erwin Mülhaupt (Hsg.), *D. Martin Luthers Psalmen = Auslegung. 2. Band Psalmen* 26-90, 528; B. Lohse, 『루터연구 입문』, 168.

49)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 루터가 히브리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히브리어는 언어 중에서 가장 최고이며 훌륭합니다. 히브리어는 순수하고 구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자기만의 색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는 많은 함성어를 지니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단 하나의 단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보다 훨씬 더 단순하지만 장엄하고 아름다우며 꾸밈없고, 적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배후의 의미는 풍성하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M. Luther, *Tischreden* 1, no. 1040; H. J. Selderhuis, 『루터. 루터를 말하다』, 신호섭 옮김 [서울: 세움북스, 2016], 290-291쪽에서 재인용)

절	히브리어 본문	1524년판	1531/34년판
9	לְמִנּוֹת יָמֵינוּ כֵּן הוֹדַע וְנָבֵא לֵבָב חָכְמָה:	Lass uns wissen die Zahl unserer Tage / Das wir eingehen mit wei- sem Herten.	Lehre uns bedenken, daß wir sterben müssen, auf daß wir klug werden.

1524년판에서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리메노트 야메누 켄 호다으> (לְמִנּוֹת יָמֵינוּ כֵּן הוֹדַע)를 “우리의 날들의 수를 알게 하소서”라고 옮겨지고, <베나비 레바브 호크마> (וְנָבֵא לֵבָב חָכְמָה)가 “그리하여 지혜의 마음으로 이해되게 하소서”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1531/34년판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의미중심의 번역으로 바뀌어 있다. 루터는 “우리의 날들의 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로 의역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인간이 원죄(Erbsünde)를 가진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루터의 신학이 크게 작용하였다.⁵⁰⁾ 이렇게 죽음을 강조하는 표현은 3절에서도 발견된다.

절	히브리어 본문	1524년판	1531/34년판
3	תָּשֵׁב אָנוּשׁ עַד־דָּכָא	Der du die Menschen kehrest ins verderben	Der du die Menschen lässt sterben

1524년판에서 “부패할 것으로 돌아가게 하신다”(kehrest ins verderben)로 번역된 표현이 1531/34년판에서 “죽게 하신다”(lässet sterben)로 바뀌어 있다.

또한 후반절에서 “지혜의 마음으로 이해되게 하소서”라는 표현 대신 “지혜롭게 되게 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다. 사람들 가운데는 죄와 그것에 대한 징벌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의 현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지혜롭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러한 이해를 따라 루터는 이 부분을 “지혜롭게 되게 하소서”라고 의역한 것이다.

50) Erwin Mülhaupt (Hsg.), *D. Martin Luthers Psalmen = Auslegung. 2. Band Psalmen* 26-90, 537.

이처럼 루터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면서도 독자들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의역하여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1531-1544년판 인쇄 후기(Nachwort zu den Wittenberger Psalterdrucken von 1531-154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531년판 시편 번역이 1524년판 번역과 달라진 점을 이렇게 요약한다. “이전 독일어 시편집(필자 주: 1524년판을 의미)은 많은 곳에서 히브리어에는 좀 더 가까우나 독일어에서는 좀 더 멀다. 이번 번역은 독일어에는 좀 더 가까우나 히브리어에서는 좀 더 멀다.”⁵¹⁾

나가는 말

루터는 언어에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는 고전어뿐만 아니라 독일어에 탁월한 감각을 가졌다. 그러나 루터의 성경번역이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번역은 처음에는 홀로 하는 작업이었으나 후에는 여러 전문 학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협업체제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넘기 어려운 집단지성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늘날 추구되는 협업이 루터시대에 이미 꽃을 피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루터에게 있었던 인문주의적 탐구성과 종교개혁적 신실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이다.

그의 번역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의 번역은 문자에 충실하면서도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고자하는 의미에 충실한 번역이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신학사상을 반영하는 번역이었다. 그는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독자들이 처한 환경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 표현을

51) Erwin Mülhaupt (Hsg.), *D. Martin Luthers Psalmen = Auslegung. 2. Band Psalmen 26-90*, 6 (WADB 10 I, 590).

선택하였으며 그 안에 종교개혁 사상을 담아냈다. 이렇게 성경 원문에 기초한 그의 성경 번역은 성경 해석이 되었고 그의 신학사상이 되었으며, 종교개혁의 원천이자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루터의 번역 원칙과 특징들은 오늘날 우리의 성경번역과 해석, 그리고 적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경번역은 단순히 번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성경 원문에 기초한 신학과 신앙이 당대에 필요한 개혁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이러한 루터 성경번역의 의미와 교훈이 한국교회에도 새롭게 발견되고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성경, 시편번역, 루터의 번역 원칙, 문자와 의미

<Key words>

Luther's Reformation, Lutherbibel, Translation of the Psalms, Principles of Luther's Translation, Letter and Meaning

* 접수일 2017년 9월 1일, 수정일 2017년 10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28일

참고문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 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박동현/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Konrad Schmid and Matthias Krieg, ed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1),」 『성경원문연구』 40, 265-290.
- 엄현섭, “루터교회와 성경 번역,” 9 『신학과 신앙』 (1998), 180.
- 정병식, “시편4편 주해에 나타난 초기 루터신학의 변화와 발전,” 『역사신학 논총』 2 (2000), 119-135.
- Aland, K., (Hrg.) *Luther Deutsch. Die Werke Luthers in Auswahl. 5: Die Schriftausleg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 Brinkel, Karl, *Luthers Hermeneutik in seiner Übersetzung des Alten Testaments und die gegenwärtige Revision der Lutherbibel*, Berlin: Lutherisches Verlagshaus, 1960.
- Dillenberger, J., 『루터저작선』, 이형기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Dreytza, M. 외 공저, 『구약성서연구방법론』, 하경택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5.
- Fricke, Klaus Dietrich, “»Dem Volk aufs Maul schauen« Bemerkungen zu Luthers Verdeutschungsgrundsätzen.” Siegfried Neurer (Hsg.). *Eine Bibel viele Übersetzungen. Not oder Notwendigkeit?* (Stuttgart: Evangelisches Bibelwerk, 1978), 98-110.
- Basil Hall, “Bibelübersetzung III/3,” *TRE* 6 (Berlin/New York: W. de Gruyter, 1980), 254-258.
- Lohse, B., 『루터연구 입문』,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Mühlen, zur, Karl Heinz, “Luthers deutsche Bibelübersetzung als Gemeinschaftswerk,” Siegfried Neurer (Hsg.), *Eine Bibel viele Übersetzungen. Not oder Notwendigkeit?* (Stuttgart: Evangelisches Bibelwerk, 1978), 90-97.
- Mülhaupt, Erwin, (Hsg.) *D. Martin Luthers Psalmen = Auslegung. 1. Band*

- Psalmen 1-2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9.
- Mülhaupt, Erwin, (Hsg.) *D. Martin Luthers Psalmen = Auslegung. 2. Band Psalmen 26-9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 Posset, Franz, *Marcus Marulus and the Biblia Latina of 1489: An Approach to His Biblical Hermeneutics*, Köln/Weimar: Böhlau Verlag, 2013.
- Reinitzer, Heimo, *Biblia deutsch: Luthers Bibelübersetzung und ihre Tradition*, Hamburg: Wittig Verlag, 1984.
- Reventlow, H., Graf. *Epochen der Bibelauslegung. Band III Renaissance, Reformation, Humanismus*, München: Verlag C. H. Beck, 1997.
- Sauer-Geppert, Waldtraut Ingeborg, “Bebelübersetzung III/1,” *TRE* 6 (Berlin/New York: W. de Gruyter, 1980), 228-246.
- Schmidt, Muhammad Wolfgang G. A., *Martin Luther und die Übersetzung der Bibel ins Deutsche. Kritisch hinterfragt anlässlich des 500jährigen Reformationsjubiläums*, Berlin, 2016.
- Selderhuis, H. J., 『루터. 루터를 말하다』, 신호섭 옮김, 서울: 세움북스, 2016.
- Tschirch, Fritz,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2. Entwicklung und Wandlungen der deutschen Sprachgestalt vom Hoch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Berlin: Schmidt, 1969.
- Wevers, Richard F., (ed.) *A concordance to the Latin Bible of John Calvin: along with the biblical text itself reconstructed from the text of his commentaries 1-6*, Grand Rapids, Mich.: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at Calvin College and Seminary, 1985.
- <https://de.wikipedia.org/wiki/Lutherbibel>.
- <https://www.die-bibel.de/bibeln/online-bibeln/lutherbibel-2017/bibeltext>.

<초록>

루터의 성경과 번역

-시편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하경택

(장로회신학대학원 교수)

‘근원으로 돌아가자’(ad fontes)는 인문주의자들의 모토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성경에 기반을 둔 신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자국어인 성경을 돌려준 성경번역가이기도 하였다. 루터 이전 위클리프나 후스뿐만 아니라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츰빙글리도 자국어인 성경을 번역하였지만, 성경번역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사람은 루터이다. 루터는 언어에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는 고전어뿐만 아니라 독일어에 탁월한 감각을 가졌다. 그러나 루터의 성경번역이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갖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 학자들과 함께 동역한 협업의 결과이었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적 신실성과 인문주의적 탐구성이 잘 녹아 있다. 그는 자신의 신학이 근원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전에서 성경을 번역했고, 번역한 성경이 좀 더 완전해지도록 수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을 이루어냈다. 이를 통해 탄생된 루터 성경은 지역 방언들을 신고지대 독일어로 통일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가톨릭 지역과 개신교 지역의 언어사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의 번역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의 번역은 문자에 충실한 번역이었으며, 둘째, 그의 번역은 의미에 충실한 번역

이었으며, 셋째, 그의 번역은 루터의 신학사상을 반영하는 번역이었다. 이렇게 성경 원문에 기초한 그의 성경 번역은 성경 해석이 되었고 그의 신학사상이 되었으며, 종교개혁의 원천이자 동력이 되었다.

<Abstract>

Luther's Bible and Translation: Focused on the Translation of the Psalms

Prof. Kyung-Taek Ha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motto of the humanists ‘ad fontes’ became the motto ‘go back to the Bible’ for the Reformers. All of the Reformers were not only Bible-based theologians, but also Bible translators who returned to believers the Bible in their native language. Not only Wycliffe and Hus before Luther but also Zwingli, who lived contemporaries with Luther, translated the Bible into their native language. But Luther was the one who left the most significant footsteps in Bible translation. Luther is regarded as a man of genius. He had an excellent sense of German as well as classical language. However, Luther's translation of the Bible historically is highly valued and has a lasting vitality, not merely because of his own personal capacity, but as a result of his collaborative work with other scholars. There is a good fusion of religious reformism and humanistic exploration in Luther's work. He translated the Bible in its original form because he believed that his theology must return to fundamental principles,

and he revised his translation repeatedly to make the translated Bible more complete. The Bible of Luther (Lutherbibel) led to the unification of local dialects into the New-High-German (Neuhochdeutsch), and has greatly influenced the language use of both Catholic and Protestant communities. The characteristics of his translation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his translation was faithful to the word; second, it was faithful to the meaning; and third, it reflected Luther's theological thought. His translation of the Bible, based on the original text of the Bible, became an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hat grounded his theological thought, and thus became the source of, and power behind, the Reformation.